2025-12-24

Economy Brief

잇따른 외환 수급대책, 환율 안정에 기여 예상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정부와 한국은행의 다양한 외환수급 대책으로 한 방향으로 쏠려있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도움

연말 혹은 연초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환 헤지도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뿐만 아니라 실제 수급 측면에서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달러, 엔 및 위안 등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도 원화 강세 흐름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듯

다양한 외환수급 대책을 꺼내든 정부와 한국은행

정부와 한국은행의 다양한 외환수급 대책이 그 동안 한 방향으로 쏠려있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와 더불어 한시적인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를 발표한데 이어 24일 정부는 1)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 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여 해외주식 투자 과정에서 환 헤지를 실시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 3)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기록된 항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을 95%에서 100% 상향을 골자로 한 외환안정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1) 외환건전성 부담금 : 은행들의 과다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입한 제도.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2) 외화 지분 부리: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일단 정부가 세수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실제 외환 수급 개선과 함께 그 동안 일방적이었던 원화 약세 심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들 역시 해외 자회사 유보금의 역송금이 늘어날 개연성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책,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와 한시적인 외화지준 부리 조치 역시 시차를 두고 달러 수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의 잇따른 수급 안정책과 더불어 연말 혹은 연초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환 헤지도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뿐만 아니라 실제 수급 측면에서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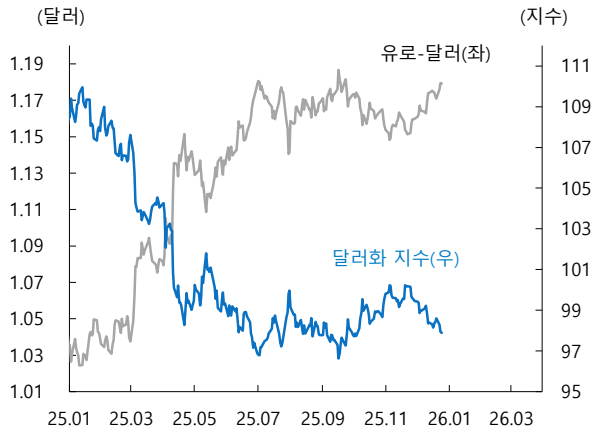
급격한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완만한 달러-원 환율 하락을 예상

이번 대책으로 원화 가치가 급격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은 추가 상승보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화 약세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외환당국 실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달러-원 환율은 하향 안정될 것이다. 또한 내년 4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국채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음도 달러-원 환율 하락에 일조할 것이다.

다행히 대외 여건 역시 달러-원 환율 하락에 우호적이다. 연초 차기 연준의장 선임 등으로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 기대감이 달러화의 추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엔화는 일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음도 원화 강세에 긍정적 여건이다. 달러 및 엔 뿐만 아니라 최근 위안화 역시 강세 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대외 여건도 원화 강세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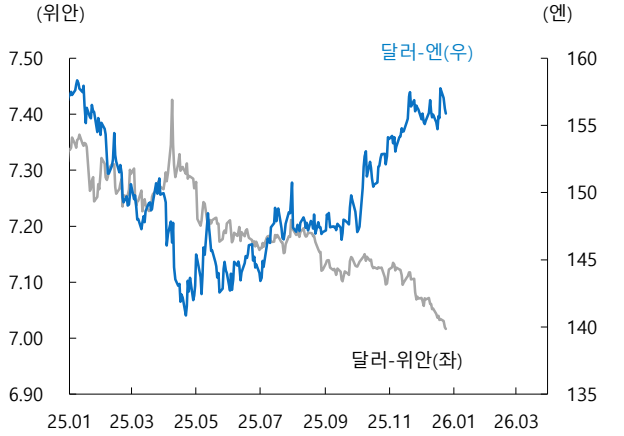
요약하면 정부 환율 안정 의지와 글로벌 외환시장 환경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1. 달러 약세 속에 유로 강세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반등했던 달러-원 환율도 다시 하락(엔 강세) 중이며 위안화는 강세폭은 확대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